

READER'S PAGE

독자에게
듣는다

“전공메타버스로 학과 이해 높여”

취재 윤소영 리포터 yoonsy@naeill.com



거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자녀
고2·중3



구독 기간
개월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했나요?

청소년 기관에 비치된 책 틈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훑어보니 다양한 콘텐츠가 알차게 담겨 있더라고요. 고2와 중3인 아이들의 대입과 고입을 앞두고 교육 정보를 발빠르게 얻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구독하게 됐어요.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고2인 큰아이의 입시에 도움을 주고자 꼼꼼하게 읽어요. 덕분에 수시와 정시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제도에 변화가 있을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WEEKLY THEME_ 2026 수시 지원 가이드 논술전형 편 내 성적에 맞는 대학은? 초간편 6장짜리

“성적대별로 적합한 논술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대비 방법과 지원 전략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논술전형에 관심이 가던 차에 큰 도움이 됐어요. 내년에도 더욱 알찬 수시 지원 전략 기사를 기대할게요.”



입학과 동시에 취업 문 열리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호도가 높은 서울 주요 대학만 고집하지 않으면 외로 실속 있는 제도와 전망 좋은 학과가 곳곳에 많더라고요. 기사를 통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도 알게 됐어요.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마다 적절한 주제로 깊이 있게 분석해주고 여러 합격생 인터뷰도 실려 있어 입시를 속속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학과를 소개하는 ‘선배들이 들려주는 전공 메타버스’를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계 전망이나 졸업 후 진로도 알 수 있었고요.

자녀 교육과 관련해 어떤 점이 고민인가요?

중3인 둘째 아이는 주요 교과목에 흥미가 없고 성취도도 높지 않아요. 〈내일교육〉을 통해 최근 입시 정보를 접하다 보니 일반고에 적응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 예체능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 요리 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이 많아서 대안학교나 특성화고를 알아보고 있어요. 주변에 진학한 사례가 많지 않고 정보도 충분하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내일교육〉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에 비해 특성화고나 대안학교는 입학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인맥으로 알아보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세부 분야가 특성화된 전문대학도 많은데 자주 안 다뤄지는 것 같아요. 전문대학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입시제도가 다양해지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으니 중하위권을 위한 정보도 두루두루 다뤄주길 바라요. ⑩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Reporter's A/S

특성화고는 분야별 전문 직업 교육을 통해 학생의 취업을 돋憬니다. 요리, 패션, 미디어, 애니메이션 등 전문 분야도 다양합니다.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학교는 협력과 체험,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교육부의 인기를 받아 학력 인정이 가능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구분됩니다. 지난 기사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본지 1136호
‘일반고 VS 특성화고,
SW · AI 진로 중학생 위한
고교 선택 가이드’ 기사 참고

